

전체 산업재해 감소... 건설업은 증가

고용부, 2010년 현황 발표, 2만여
명 부상, 574명 사망

작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매일 61명이 다치고, 이틀에
3명씩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5일
'201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
하며 건설현장에서 작년 총 2만
2,502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
하고 57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순수하게 업무상 부상을 당
한 근로자 수는 2만1,883명으로 전
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작년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1,307명으로 이 중 520명이 건설현
장에서 발생해 전체 사망자의 39%
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 근로자의
33.9%가 5인~49인 미만의 사업장
에서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의 허술
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전도(넘어짐) 재해
가 22%(2만1,240명)로 가장 많았고,
협착(끼임) 재해 17%(1만6,881명),
추락(떨어짐) 재해 14%(14,038명)
순이었다.

이같이 건설업의 산업재해율이

7.2%나 증가한 가운데 전체 산업재
해율은 소폭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
으로 재해율이 0.6%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전년(0.70%)
에 비해 0.01% 감소한 0.69%를 기
록했고, 재해자 중 사망자수도
2,089명으로 전년(2,181명) 대비 감
소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현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고용부는 "특히 경기가 회복 국면
에 접어들면서 근로자 수가 전년 대
비 31만3,000명이 증가한 가운데
재해율이 감소한 것이어서 매우 의
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행 재
해율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재해 지
표를 세분화·다양화할 계획을 밝
혔다.

앞으로 행정역량을 증대한 사고예
방에 집중하고, 사망자수도 국제 비
교가 가능하도록 질병에 의한 사망
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하
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나간다는 것
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4년에는 최근 5년 평균 근로손
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
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작년 건설하도급분쟁 70% '합의조정'

조정위, 217건 중 144건 해결
공사비 미지급 57% 차지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건설 분야 하도급 분쟁이 모두 217건, 이 중 조정 성립이나 신고 취하 등으로 해결된 분쟁이 1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5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수삼)에 따르면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갖고, 신고접수된 하도급분쟁 21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 조정이 성립된 분쟁이 130건, 신고 취하된 분쟁이 14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분쟁이 62건, 각하·반려된 분쟁이 11건 등으로 전체 사건 중 해결된 사건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대상은 공사비 미지급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고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분쟁이 15.6%,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련 분쟁이 11.4%, 기타 16.0% 등이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하도급공종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또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24일 '2011년 제1차 조정회의'를 열어 31건의 하도급 분쟁을 심의하고 이 중 19건에 대해 합의조정과 신고 취하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 재이용 2020년엔 30억톤으로

환경부, 5조원대 투입... 빗물 560만톤·하수 15억톤 활용키로

오는 2020년 국가의 물 재이용량이 빗물 560만톤, 중수도 10억5,900만톤, 하수 14억7,000만톤 등 30억톤으로 늘어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총 5조3,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중호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시행될 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표는 △빗물이용 8배 증대(70만톤 → 560만톤/년) △중수도 보급율 66% (1억8,700만톤 → 10억5,900만톤/년) △하수처리수(장

외)재이용율 23.2% (2억7600만톤→ 14억7400만톤/년) △폐수처리수재이용 3800만톤/년 등이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법·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물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재이용 보급확대 △민간에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 및 홍보 등으로 정해졌다.

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 조정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빗물 이용은 지붕의 집수면적을 1,000㎡로 강화하고 좌석수를 폐지하며 공장 및 상가, 공동주택, 학교 등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중수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용수사용량에 따른 의무화 기준을 설정하며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장외 재이용율을 10%이상 의무화하게 추진하고 지하수 개발 및 용수이용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의 우선 검토적용 의무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물 재이용산업 기반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분리막 제조 및 모듈화 기술 등 선도형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물기업 역량확보를 통한 국내기반을 제공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물 재이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물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예

정이다.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며 재이용 산업기술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5조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빗물에 7,350억원, 중수도 1조9,589억원, 폐수 1,095억원, 하수도 2조5,041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9,000억원은 국비로 7,900억원은 지방비로, 나머지 3조6,000억원은 민간투자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취업자, 기술·전문가 중심 증가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
건축공학·토목·조경 등 유망
건설구조·마감관련 기능직은
향후 10년간 줄어든 듯

건설관련 직업 취업자는 2018년까지 기술자나 전문가 직업군은 증가하는 반면 관리자와 기능직 및 단순 종사원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까지 10년간 각 직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한 ‘2008~2018 인력수급 심층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는 2008년 14만2,000명에서 2018년 15만4,000명으로 완만하

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경기 침체에도 해외건설 호황과 저탄소·U-시티·IT기술·환경 등 새로운 건축기술의 도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토목공학 기술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10만2,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 발전소 등 해외사업이 활황을 띠 경우 수요창출이 기대된다.

조경기술자는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녹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의 복원과 공원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고 연평균 4.3%씩 급증, 건설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와 도시환경 정비와 대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내장식 디자이너는 3만1,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늘며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이다. 친환경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에서 기능성과 예술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내디자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는 2008년 9만3,000명에서 2018년 8만8,000명으로 줄며 연평균 0.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경기침체에 기인하며, 다만 해외건설 수주 호황으로 감소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직은 철근공(4만2,000명 → 3만5,000명), 건축목공(17만8,000명 → 15만3,000명) 같은 건설구조관련 기능직과 건축 도장공(4만3,000명 → 3만4,000명), 미장공(5만4,000명 → 5만명), 바닥재 시공원(3만9,000명 → 3만2,000명), 새시 조립 및 설치원(4만4,000명 → 3만9,000명)과 같은 건설마감관련 기능직의 고용은 연평균 0.8%~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인 주택 경기의 부진과 건설작업의 기계화의 진전, 건설기능직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기피 등의 요인이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능공 가운데서도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4만4,000명 → 5만5,000명)은 건물외벽 소재로 유리의 사용 증가와 각종 실내 인테리어에서 유리의 활용 증가로, **배관공(5만8,000명 → 6만6,000명)은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 배관의 설치 증가와 조선업 등 제조업 부문에서 배관 수요의 증가로**, 조경원(4만4,000명 → 4만9,000명)은 휴양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많아지고 있어 각각 2.2%, 1.3%, 1.2%씩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